

2026년 7월 싱가포르 관광 동향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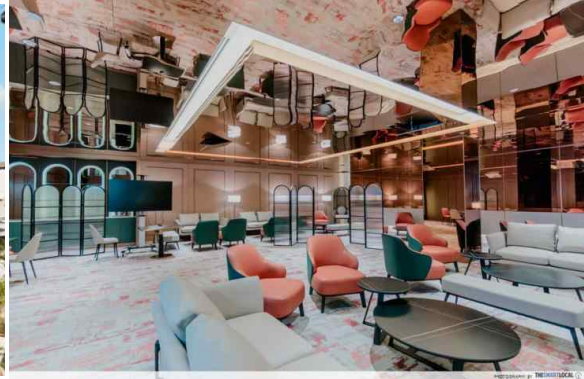
2026년 7월 / 싱가포르지사

□ 주요 관광 통계

- (싱가포르 인바운드) 2026년 6월 : 118만 명 (전년 6월 대비 4.9%↓)
 - (평균 체류일) 3.59일(전년 6월 대비 3%↓)
 - * 2026년 6월 방문객 수 상위 3개국
 - : 1위 중국(19.7만 명), 2위 인도네시아(18.4만 명), 3위 인도(10.6만 명)...11위 한국(2.9만 명)
 - * 전년 6월 대비 방문객 증가율 상위 3개국
 - : 1위 대만(9.8%↑), 2위 일본(7.8%↑), 베트남(7.8%↑)
 - * 출처: 싱가포르 통계청(stan.stb.gov.sg)
- (싱가포르 아웃바운드) 2026년 5월 : 98만 명 (전년 5월 대비 8%↑)
 - * 항공 이용 82만 명(전년 5월 대비 8.2%↑), 해상 이용 16만 명(전년 5월 대비 7.2%↑)
 - * 국가별 목적지 확인 불가, 2026년 6월 방한 싱가포르인 약 4.3만 명(전체 방한 국가 중 방문객 수 8위)
 - * 출처: 싱가포르 통계청(tablebuilder.singstat.gov.sg), 한국관광데이터랩(datalab.visitkorea.or.kr)

□ 주요 관광동향 및 정책

- 싱가포르 크루즈센터, 하버프론트 신(新) 여객터미널로 이전 개장(7. 7.)
 - 싱가포르 크루즈센터*는 폐쇄되는 기존 하버프론트센터의 여객·크루즈 운영을 약 70m 옆에 신축한 새 터미널로 이전하며, 7월 7일 바탐 패스트를 시작으로 15일 여타 페리·크루즈 운영사가 순차 이전
 - * 싱가포르 크루즈센터(SCC, Singapore Cruise Centre)는 하버프론트의 크루즈·역내 페리 터미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국영 터미널 운영사로, 바탐·카리문 등 인근 도서를 잇는 페리와 크루즈 여객을 처리
 - 신규 터미널은 무인 키오스크 25대 셀프체크인과 생체인식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해 싱가포르 국민·영주권자는 여권 제시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, 대기 공간을 약 50% 확대하고 VIP 라운지를 신설



○ 스타드림크루즈, 싱가포르發 유류할증료 면제(6. 26.~)

- 스타드림크루즈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부과해 온 유류할증료*를 6월 26일부터 싱가포르 출발 노선에 한해 면제하며, 말레이시아·태국 등 동남아 단거리 노선의 여행 비용 부담을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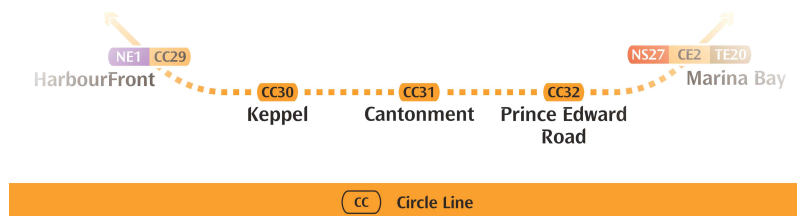
- * 유가 상승으로 1인 1박당 SGD15(약 17,000원)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해옴('26. 3.~)
- 싱가포르·말레이시아·홍콩·대만 등 주요 시장에 유류할증료 인하·면제를 확대 적용해 아시아 역내 크루즈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조치

○ 싱가포르 MRT 순환선 6단계 개통으로 관광명소 접근성 향상(7. 12.~)

- 싱가포르 육상교통청(LTA)은 7월 12일부터 MRT 서클라인 6단계를 정식 개통하며 총 39km, 33개역의 순환선 완성
- 신규 3개역(케펠·칸톤먼트·프린스에드워드) 개통으로 마리나 베이역*과 하버프론트역*을 무환승으로 연결하며 도심과 관광명소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

- * 마리나 베이역은 마리나베이샌즈·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 핵심 관광지와 컨벤션(MICE)·중심업무지구(CBD)가 인접한 도심 관광·비즈니스 거점

- * 하버프론트역은 싱가포르 남부의 교통 요지로, 센토사행 모노레일(센토사 익스프레스)·케이블카와 대형 복합몰 비보시티, 크루즈·페리 터미널이 연결된 관광 관문



○ 싱가포르관광청-트래블로카, 파트너십 갱신 및 호주 시장 신규 편입(7. 16.)

- 싱가포르관광청(STB)은 7월 16일 동남아 최대 여행 OTA 트래블로카*와의 마케팅 파트너십을 갱신하면서, 기존 공동 마케팅 대상이던 인도네시아·말레이시아·태국·베트남에 호주를 신규 추가해 5개 시장으로 확대(2019년 이후 4번째 갱신)

* 트래블로카(Traveloka)는 항공·숙박·액티비티를 아우르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여행 예약 플랫폼(OTA)

- 양측은 트래블로카 플랫폼 내 공동 타깃 캠페인·여행 콘텐츠·집계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며, 싱가포르관광청의 ‘We Don’t Wait For Fun’ 캠페인과 연계해 사회초년생·가족 단위 여행객을 집중 공략할 계획

○ 싱가포르인 여행객, 동남아 주요국 중 여행비용 민감도 1위 조사

- 클룩* 데이터에 따르면, 싱가포르인 여행객은 동남아 주요국 가운데 여행비용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* 클룩(Klook)은 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최대 여행·액티비티 예약 플랫폼(OTA)

- 싱가포르인 여행 선호 상위국의 전년 대비 수요 증가율: △일본 전체 20%↑(후쿠오카 33%↑, 나고야 58%↑), △중국 항저우 233%↑, △베트남 전체 50%↑

□ 항공 및 기타

○ 창이공항그룹, 제5터미널 개장 대비 중앙·남아시아 직항 확대 추진

- 창이공항그룹(CAG)은 7월 13일 제5터미널* 개장에 대비해, 직항이 없던 도시를 겨냥한 신규 노선 확충 계획을 밝히며, △반다아체·반자르마신(인니), △하이퐁·달랏(베트남), △우루무치·후허하오터(중국), △알마티(카자흐스탄), △타슈켄트(우즈베키스탄), △러크나우·자이푸르(인도)를 잠재 취항지로 검토

* 제5터미널(T5)이 2030년대 중반 완공되면 공항 수용 능력이 9,000만 명에서 1억 4,000만 명(+55%)으로 확충될 예정

- 창이공항 취항편의 약 85%가 아·태에 집중된 만큼 중앙아·남아시아 직항을 늘려 환승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

○ 오만항공, 무스카트-싱가포르 직항 노선 신규 취항(7. 2.~)

- 오만항공은 걸프-아시아 노선망 확대 차원에서 7월 2일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-싱가포르 간 직항을 신규 취항하며 주 4회(목·금·토·일) 운항
- 이번 취항으로 싱가포르發 중동·유럽 접근 경로가 다변화되며, 원월드* 제휴망과 결합해 창이공항의 환승 허브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
- * 원월드(oneworld)는 아메리칸항공, 영국항공, 캐세이퍼시픽 등이 속한 세계 3대 항공 제휴망 중 하나

※ (출처) The Straits Times 등 싱가포르 현지 언론 종합

(주요 관광 통계)

<https://stan.stb.gov.sg/public/sense/app/877a079c-e05f-4871-8d87-8e6cc1963b02/sheet/3df3802e-2e5b-4c79-950d-d7265c4c07a9/state/analysis>

<https://tablebuilder.singstat.gov.sg>

<https://datalab.visitkorea.or.kr/datalab/portal/nat/getForTourForm.do>

(주요 관광동향 및 정책)

- 싱가포르 크루즈센터, 하버프론트 신(新) 여객터미널로 이전 개장(7. 7.)

<https://mothership.sg/2026/07/new-singapore-cruise-centre-harbourfront/>

<https://thesmartlocal.com/read/harbourfront-ferry-terminal/>

- 스타드림크루즈, 싱가포르發 유류할증료 면제(6. 26.~)

<https://www.ttgasia.com/2026/06/24/stardream-cruises-cuts-fuel-surcharges-across-regional-sailings/>

- 싱가포르 MRT 순환선 6단계 개통으로 관광명소 접근성 향상(7. 12.~)

<https://www.lta.gov.sg/content/ltagov/en/newsroom/2026/5/news-releases/circle-line-stage-6-to-open-for-public-preview-on-4-july-2026.html>

- 싱가포르관광청-트래블로카, 파트너십 갱신 및 호주 시장 신규 편입(7. 16.)

<https://www.traveloka.com/en-sg/explore/news/singapore-tourism-board-and-traveloka-renew->

partnership-to-welcome-more-southeast-asian-and-australian-travellers-to-singapore/1008981
<https://en.prnasia.com/releases/apac/singapore-tourism-board-and-traveloka-renew-partnership-to-welcome-more-southeast-asian-and-australian-travellers-to-singapore-541078.shtml>

- 싱가포르인 여행객, 동남아 주요국 중 여행비용 민감도 1위

<https://www.straitstimes.com/life/travel/singapore-travellers-are-regions-most-cost-conscious-klook-survey>

(항공 및 기타)

- 창이공항그룹, 제5터미널 개장 대비 미취항지 직항 확대 추진

<https://www.straitstimes.com/singapore/transport/more-flights-ahead-changi-airport-to-plug-gaps-in-flight-network-in-asia-and-beyond>

<https://www.thestar.com.my/aseanplus/aseanplus-news/2026/07/14/changi-eyes-new-global-routes-ahead-of-terminal-5-expansion>

- 오만항공, 무스카트-싱가포르 직항 노선 신규 취항(7. 2.~)

<https://www.straitstimes.com/world/middle-east/oman-air-targets-tourists-on-new-singapore-route-eyes-north-asia-expansion?ref=search-results>

<https://services.omanair.com/cn/en/PressRelease/oman-air-launches-direct-flights-between-muscat-and-singapore-starting-july-2026>